

노형욱 장관, “친환경 새 단장으로 탄소중립 구현” 강조

- 3일 친환경 새 단장 새단장 한국외대 도서관 찾아 기술요소·효과 공유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.3일 친환경 새 단장 우수사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, 친환경 새 단장의 효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이날 노 장관은 김인철 총장 등 한국외대 관계자와 함께 고성능 창호, 열회수형 환기장치, LED 및 전체 소요전력의 약 40%를 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다양한 친환경 새 단장 기술요소를 함께 살펴보았다.
 - 친환경 새 단장의 설계·시공을 담당한 포스코 A&C 관계자로부터 상세 사업현황을 보고받은 노 장관은, “친환경 새 단장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착한 사업”이라고 강조한 뒤,
 - “친환경 새 단장은 국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은 물론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업계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”한다고 당부하였다.
- 또한, “2030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더욱 구체화 된 만큼,
 - “건물뿐만 아니라 교통, 물류 등 국토교통 업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”할 것을 주문하였다.

2021. 11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